

일본 프로필렌 생산비율 급상승

에틸렌 대비 76.5%까지 올라 ... 가격체계 조정 움직임 확대

석유화학 기초원료 중 에틸렌에 대한 프로필렌의 생산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5월 생산량이 프로필렌은 237만2000톤, 에틸렌이 301만2000톤으로, 에틸렌에 대한 프로필렌의 생산비율이 76.5%까지 상승했다. 2002년보다 2.3%p, 과거의 평균치보다 5%p 정도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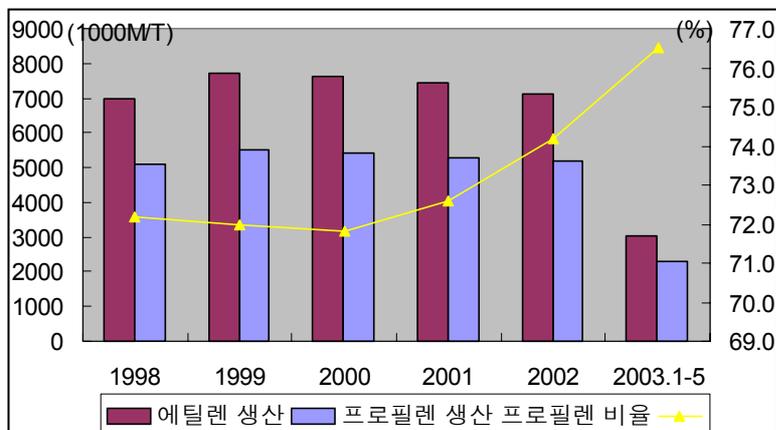
프로필렌의 생산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에틸렌 유도제품과 프로필렌 유도제품의 생산 증가에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기업들이 아시아의 에틸렌계 유도제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에틸렌이 과잉인 반면, 프로필렌 유분은 부족한 상태인데 석유화학기업들은 에틸렌을 더 적게, 프로필렌 유분을 더 많이 생산하는 운전조건과 원료선택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은 프로필렌의 생산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설비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에서 기초원료의 가격결정방식이 에틸렌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수급밸런스를 반영해 이미 프로필렌의 가격수준이 에틸렌을 웃돌고 있는데, 코스트를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에틸렌 가격이 프로필렌 가격을 자동적으로 웃도는 가격 Formula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프로필렌 생산비율



특히, 프로필렌 생산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일본기업들도 가격체계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는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코스트 제일주의를 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나프타 가격을 기준으로 한 Formula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1>